

이
름 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김 정 남



김정남 선생님은 196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 온 재야 민주화운동 역사의 산 증인이다. 평화신문 편집장 및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을 역임했고 1999년부터 월간 『생활성서』에 「민주화운동 30년, 그 역정」을 연재 중에 있다.

여기 강의 초안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저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그 일화를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앞서서 이부영 의원이 국회정보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내가 5·3 인천사태 때 도망을 다니게 됐는데 그 당시 고영구 변호사 집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고영구 변호사 집에 우환이 있어서 이돈명 변호사 집에 숨어 있던 걸로 했다. 그래서 이돈명 변호사가 구속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고변호사가 나에게 상당한 은인이니 청문회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이 각별하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라당 의원 중 한 사람이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부영 의원으로부터 이런 로비를 받았다.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 그 뒤에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제기하기를 “고영구라는 사람은 간첩을 석방하라고 하고, 한총련 학생들을 수배해제 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청문회 하는데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닌 이부영은 잘못을 사과하고 고백을 해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에 이부영 의원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라고 해서 의원들끼리 다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전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배의 나날들

1986년 그때는 민주화운동이 다소 열기가 붙어서 야당과 민주화 운동세력이 힘을 합쳐 곳곳에 다니면서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대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현판식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요구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1986년 5월 3일날 인천에서 신민당과 더불어 재야민주단체가 총집결을 해서 전두환 군사정권에 상당히 위협적인 집회를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느낀 전두환정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세력까지 포함하는 재야세력이 크게 모이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불법집회 또는 공산주의계열의 책동에 의한 정부전복 내지는 이런 운동의 일환이라고 사전에 봉쇄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잡히면 몇 년씩 감옥에 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배를 다녀보면 이 대명천지에 내 몸 하나 들 땅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이 수배생활의 고통입니다. 대학동기였던 이부영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내가 지금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잘 알고 지내던 고영구 변호사한테 “내 친구 이부영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수배를 당했는데 갈 데가 없다. 당신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돕지는 못하지만, 또 그 사람들처럼 앞장서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거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받아줬어요. 이처럼 인천사태와 관련해서 수배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사람들이 각각 어디 가서 누구와 인연을 맺어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영구 변호사집이 역촌동이었는데, 이부영이는 역촌동에 숨어서 들머널며 불광동에 사는 저와 왕래를 했습니다. 이부영이와 저는 서로 암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부영이가 와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고영구 변호사의 어머니가 팔십이 넘은 노모이고 고변호사의 부인이 지병인 위경련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만약 내가 잡혀서 고변호사 집에 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고변호사는 범인을 은닉한 죄로 구속될 것이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될 것이다. 또한 노모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을 것이고 부인의 병환 또한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집안에 그런 재앙을 가져다 줄 수는 없으니, 내가 숨어있기는 고영구 변호사 집에 숨어있다손 치더라도 잡힐 때 내가 다른 집에 있었던 걸로 할 수 없겠느냐?”

대저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보니 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인권변호사인 이돈명, 홍성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준비를 하거나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형법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나이가 어린사람은 가급적 구속수사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당시 이돈명 변호사는 연세가 65세쯤 되었어요. 그러니 이돈명 변호사는 그런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구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독재권력이 그런 배려까지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인간인 이상 고령자에게 구속은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돈명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고영구 변호사집에 숨어있다는 얘기는 비밀이니까 할 수는 없었죠. “지금 이부영이가 이러이러한 일로 어느 집에 숨어 있는데 딱한 사정이 있어서 만약 잡히게 되면 어디 다른데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선생님 댁에 있었던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부영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번 호사님이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쯤 날씨가 쌀쌀해질 무렵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이부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부영의 목소리는 오랜 친구니까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거나 전화번호를 얘기하지 않고 “그때 만났던 거기서 만나자”하여 만나고 있던 중에 이부영이가 어떤 사람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정보부 사람이 사실을 알고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버틸 테니까 너는 뒤로 튀어라, 담을 넘던지 뒤로 가라” 그래서 이부영이는 뒤로 도망가고, 저는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부영이는 잡혔습니다. 마침 그날 어떤 선배한테 도피자금 비슷한, 용돈에 보태 쓰라는 돈 삼십 만원을 받아 가는 길에 저하고 만났던 거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잡혔기 때문에 삼십 만원의 출처를 추궁하다 김정남이가 준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부영이 들어간 얼마 뒤에 저도 수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만할 때는 한때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예컨대 거짓된 질서는 타파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될 질서가 아닌 것은 거꾸러뜨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 곁장에는 ‘나는 인민 일반을 불타게 사랑한다’라고 적었고, 꿈을 꺾어도 제가 혁명가

일생을 살다가 단두대에서 죽는 꿈을 꾸다거나 그랬습니다만, 민주화되고 난 뒤에 돌이켜 보면 이 나라 민주화의 역사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 어떤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면 계속 제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도피생활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피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도 안하고 젊을 때야 산속에서 살 수도 있고 굴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몸을 함부로 굴릴 수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막막해집니다. 산에 가도, 목욕탕에 가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 수배생활의 고통스러움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의 만남, 전병용

이렇게 수배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언젠가 여러분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도관 출신인 전병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경위 또한 재미있습니다.

제가 6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갔을 때는 사상범들에게 사형을 언도해놓고 처형은 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한 칸 건너 하나씩 감방 안에 쪽 있었습니다. 그 땐 새로 들어오는 정치범들한테 “교도소 안에서는 건강이 제일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수마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치범들 대부분이 아주 추운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했죠. 요즘은 날씨가 옛날보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영하 15도쯤 되면 주전자에 있는 물이 팡팡 열게 됩니다. 그러면 젓가락 등으로 있는 힘을 다해 깨면 겨우 부스러지고 그것을 수건에 담아다가 냉수마찰을 합니다. 심장에서 먼 곳인 발끝부터 해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 무릎쯤 올라오면 제 몸이 안

보일 정도로 김이 막 올라와요. 옛날에 감옥이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때 동쪽하늘에 햇빛이 올라오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은 신비로워지고 태양은 떠오르고, 어찌면 우리들의 혁명은 이뤄질 거 같다는 막연하지만 기분 좋은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년대 말에 다시 형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사형수들을 전부 죽여 버렸어요. 사형집행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사형수를 처형하겠다는 결재를 올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들은 굳이 자신이 있을 때 사형수들을 처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압력이나 내각의 요구가 있어서인지 자신의 임기 내에 처형을 하겠다고 해서 1965년 이후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살아온 정치범, 사상범들에 의해 유지되어온 감옥의 전통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60년대 초에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냉수마찰을 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냉수마찰을 하면 그전처럼 교도관들이 부러운 눈길 또는 존경과 그런 눈길로 봐야 할 거 같은데, 60년대 말에는 이것이 범칙이라는 겁니다. ‘니가 왜 다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뭐가 잘났다고 냉수마찰을 하느냐’며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무관심한 반면에 한 두 사람은 와서 경탄의 눈길로 쳐다보며 존경한다는 얘기도 하면서 저와 친해진 교도관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병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도관들이 긴급조치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가령 수감된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전달해

서 ‘이런 건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맞추자’라든지 또는 밖에 있는 소식들, 국내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뉴스위크』나 외국에서의 한국 민주화소식들 등을 몰래 넣어준다든지 편의를 봐 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제가 또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언이 나올 수 있는 뒷면에는 교도관들의 보이지 않는 협력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인천사태로 이부영이도 도망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도망 다녔는데 그 중 장기표라는 사람도 감옥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전병용과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전병용이 교도관을 하면서 장기표를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런데 전화가 도청이 되어서 장기표가 전병용이 집에서 잡히게 돼서 이제는 전병용이도 수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전병용이라는 사람이랑 저랑은 전직 교도관 집에 같이 숨어있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사람이 한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생활이 유족하지도 않은 어려운 사람한테 장정 둘이 삼시세끼 얻어먹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해서 결국 제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전병용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다니러 나온 친한 친구하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서 도피 생활 하는 곳에서 하루저녁 나와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회포를 풀며 술도 한잔하며 하루저녁을 같이 자고 나서 아침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니깐, 전병용이하고 한 번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함께 있었던 곳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형님을 꼭 만나야 한다. 절대적으로 만나야 한다. 지금 어디 있는지 빨리 좀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 전병용이

손에 이부영이로부터 저한테 온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사태 때문에 수배자가 많고 정치범들이 많아지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서대문교도소에 넣거나 많으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을 시키는데, 워낙 정치범들이 많으니까 분산 배치 해야겠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영등포교도소에 이부영이를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넣으면 말도 맞추고 단식투쟁도 하니까 분산배치를 한 거지요. 영등포교도소에는 염보현이라고 전직 서울시장도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모

그해 87년 1월 14일에 박종철이가 죽었습니다. 박종철이가 죽은 것에 대해 처음에 치안본부 발표가 “탁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여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자기네들도 도저히 그렇게 우길 수만은 없었는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라는 두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본격적인 고문은 아니지만 박종철이를 잘못 다뤄가지고 죽였다고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부영이가 있는 영등포교도소에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강진규 경사나 조한경 경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중에서 진주 사람인 강진규 경사의 아버지는 면회 와서는 “내가 이놈아,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꾸짖는다 말이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강경사는 “내가 진짜 박종철이라는 사람을 고문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이 사람들은 조무라기이기 때문에 누가 고문할

때 다리를 들어달라고 하면 다리나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주체적인 수사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질타를 들으니까 울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난 안 그랬습니다. 결코 박종철을 죽이지 않았습시다.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했고, 이런 이야기를 교도관들이 듣게 됩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 가짜라더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야기가 이부영이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니들이 안 죽었으면 왜 니들을 잡아 놓냐, 누가 죽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문의 주역이나 조연도 아니고 오히려 뒷전에 있었던 심부름하던 사람이고 실제 핵심멤버들은 따로 있는데 그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잡아넣은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최후 책임자가 누구이고, 진짜 고문을 맡았던 담당자는 누구누구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부영이 교도관들로부터 듣고는 그때마다 머릿속에 외워두었다가 펜을 빌릴 수 있을 때마다 저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제 일신(第一信) “강진규, 조한경이는 이 사건의 주범이 절대 아닙니다,” 제 이신 “주범은 탐문한바 누구누구다” 그리고 제 삼신 “배후를 조정하는 자는 대공치안본부의 책임자다. 이 사람이 사건을 다 꾸미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대로 살아주기만 한다면 가족과 모든 책임, 너희들 석방까지도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전병용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게 2월이라고 여겨지는데, 며칠 후 3월 17일에 전병용이는 잡혔어요. 만약 전병용이

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해주기 전에 잡혔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은 폐조작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박종철 사건은 조작되었고 고문치사로 죽었으며 범인 또한 조작된 것이고 그들은 실제 범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 질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의 오묘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병용이가 나한테 편지를 전달하고 난 얼마 뒤에 자기가 숨어있던 교도관집에서 잡혔어요. 이 편지를 내가 전달받지 못했다면 박종철 사건은 영원히 역사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시국이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과 개인적으로 서신을 왕래하는 사이라서, 이 사실을 추기경님에게 알렸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말하자면 당국이 박종철을 고문했다고 발표한 사람들은 가짜이고, 진짜 범인들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기경님까지도 “그건 믿겠다. 그러나 폭로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더군요. 그래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기관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폭로하는 방법과, 야당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었는데, 저는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있는 김덕룡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김영삼 총재한테 박종철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든 폭로해야 하였고 어쩌면 이 폭로가 정국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치인들은 물론 신부들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함세웅 신부님이 김승훈 신부님의 회갑문집에 쓴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군요. 함세웅 신부님이 그때 명동성당의 홍보국장을 했는데, 제가 계속 SOS를 치고 “폭로를 하시오. 제발 신부님! 용기를 가지고 폭로해 주십시오. 정말 안 되면 김정남이가 이런 제보를 해왔다고 공개해도 좋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두 번 도망 다니는 거 아니니까 폭로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박종철 사건은 조작되었다라는 발표 문안을 수도 없이 썼습니다. 지금도 원문이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신부님들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때는 이부영이도 잡혀 들어간 뒤고 해서 제가 고영구 변호사님 집에 있었는데, 고변호사 부인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때 함세웅 신부님은 자기 교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구파발 성당의 주임신부인 김홍진 신부님이라는 분이 외국에 나가 계셨던 거 그랬어요. 그래서 함신부님이 주일마다 구파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대신 집전해 주셨습니다. 일요일에 함신부님이 구파발 성당에 나갈 때마다 함신부님한테 전해 주십사 하면서 고변호사 부인 편으로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공개해도 좋다’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함신부님의 후일담에 의하면, 함신부님이 김승훈 신부님에게 찾아가, 미사에서 발표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김승훈 신부 모친께서 무슨 눈치를 채셨는지, 둘이 만나는 장소에서 떠나시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해 5월 18일날 광주 5·18기념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했는데, 김승훈 신부님이 은폐조작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에 고변호사의 부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고변호

사님 부인이 물론 가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다 와서 고변호사님 부인이 “김승훈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예를 올리는데 어쩌나 경건한지 장백의가 넘쳐 머리 위로 흐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절을 하더라. 마침내 신부님들이 해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고변호사를 비롯하여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당국에서 그런 일은 없다며 잡아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둘씩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대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돈명 변호사, 고영구 변호사와 관련된 일련의 전개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월 18일에 발표한 ‘박종철사건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그해 6월항쟁이 불붙었고, 마침내 6·29선언으로 이어져 민주화를 쟁취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고영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멤버로서 이후에도 박종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또 박종철이 권력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일련의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박형규 목사님께서도 6·10항쟁 때 그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대표위원 중의 한사람이었지만, 고변호사님도 법조계를 대표해서 공동대표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사람을 놓고 그때 안기부에 있던 사람이나, 민정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이념 편향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없다,’ 또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부영 의원보고 ‘니가 그런 사람을 봐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정부에도 있어 봤지만 '저 사람은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어도 딱 부러지게 과거청산이 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게 문민정부다, 국민의 정부다, 참여정부다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민주화운동을 했고 누가 탄압의 편에 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그랬듯이, 민주화된 뒤에 민주화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민주화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은 '그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었어야 했고, 이것은 앞으로 꼭 물어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지하의 양심선언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의안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초안에 김지하의 양심선언에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했습니다. 독재정권의 경우에도 광란의 시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성적 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독재정권이 라도 더 광기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김지하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75년 2월 15일날 석방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다시 구속이 되는데, 그 때 나와서 김지하가 했던 일

중 하나는 동아일보에 「고행 1974년」이라는 글을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 것입니다. 3회에 걸쳐서 연재한 내용 중의 핵심은 인혁당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판결이 75년 4월 8일날 있었는데 다음날인 4월 9일날 사형수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체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파묻거나 화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현 신부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바퀴 밑으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말하자면 사람의 목숨 같은 건 권력을 위해서 거침없이 죽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김지하가 들어간 것은 그가 인혁당이 조작되었다고 떠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잡아넣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그렇듯이 정치보복의 성격을 띤 반공법 위반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국에서 ‘김지하 반공사건의 진상’이라는 노란표지의 책을 영문과 우리말로 만들어서 전 외국공관과 전국 각 기관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김지하는 빨갱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지하에게 책도 성경도 안 넣어 주고, 보통 변을 보고 닭는 막휴지를 넣어 주는데 그것조차 안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다가 모니터장치를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하는 겁니다. 좌우 옆방도 비웠습니다. 이걸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뭔가 보통의 구속 상태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검사가 최명부라는 사람이었는데 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공소사실은 변경하지 않고

적용 범조항만 변경을 했는데, 반공법 위반의 경우 재범이면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다는 범조항을 첨가한 것입니다. 나는 이들이 김지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게 되었고, 김지하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속도로 인혁당 사람들 9명을 죽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김지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재판을 끝어서 저들의 계획에 일단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하의 공소사실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혁당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범죄의 하나였는데 마침 74년에 군법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을 재판한 판사가 바로 김지하의 재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혁당 사건을 판결해서 죽인 사람이, 말하자면 1심판결을 한 판사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되었다’고 한 김지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면 김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법률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당신의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유는 분명히 합당하니까 기피신청을 해야겠는데, 당시 김지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인 홍성우, 황인철, 이돈명 등과 같은 분들도 변호사 자격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을 좀 꺼림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옥에 있는 김지하에게 “김지하 당신이 법정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이 매우 조심스러워 하니 당신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어렵게 전했습니다.

김지하는 그해 5월 20일날 첫 번째 재판을 했습니다. 워낙 살벌

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김지하 하나를 끌고 나오는데 교도관들이 한 30명 정도 붙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계호하는데 30명이 포승으로 묶고 또 묶고 줄줄이 아주 두껍게 엮어서, 김지하 한 사람을 에워싸고 법정에서 와서 앉아 재판을 하니 까, 김지하가 어디선가 ‘법정에 칼이 섰다’라는 그런 표현을 나중에 썼습니다. 김지하는 재판이 개정되자마자 판사에게 “이의가 있다. 당신은 인혁당 사건을 재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혐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을 판결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당신의 재판을 거부한다”고 말하니까 줄지에 기습을 당한 판사는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살길은 양심선언을 통해서 내외에 구명을 호소하고, 내외여론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일단 재판연기에는 성공을 했으니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양심선언을 쓰자.’ 이래서 그해 8월 4일날 일본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영문과 일문 그리고 우리말로 된 양심선언이 온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지하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퍼져 사르트르, 브란트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서명을 해서 ‘김지하를 죽여서는 안된다’며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 김지하를 살리게 되었는데, 양심선언에 있는 내용의 일절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에 반대되는 것이며, 자유로운 말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감춰진 진실이 가차없이 폭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나는 진리가,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인간을 해방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 민중이 스스로의 운명의 열쇠를 쥐도록 하는 것—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쟁취하려

고 싸우는 것은 철저한 말의 자유—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압제에 대한 겁 없는 거부를 뜻하는 것이다. 민중이 원하지 아니하는 정치권력을 폐지할 권리 없이는 민주주의는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민중의 혁명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최종적인 담보로 하여 존립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지하의 양심선언은 꼭 기억되어야 할 기념비적인 문건일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이 자기 목소리,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씌어진 글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때는 해를 보고 해라고 할 수 없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말 좀하고 살자’ 이것이 아주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김지하의 양심선언에도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라는 동안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들을 죽 만났습니다만은 사실 63년도부터 79년까지에는 오직 박정희라는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우리도 다른 이름의 대통령을 한 번 가져봤으면 하는 것, 다시 말해 ‘권력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10항쟁 때 민주헌법쟁취, 특히 대통령 직선제를 바랬던 것도 오랜 민주화운동 가운데 우리 손으로 우리 권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역사

실제로 민주화의 기간은 역사에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잃어버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잃어버린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쉽게 본다면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부터 계엄령이 동시에 선포되었습니다만, 그때서부터 87년 6월 29일까지를 일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 권력과 관련해서는 가령 군사정치문화가 청산되고 문민정부 시대가 시작되는 1993년 2월 25일까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령 어떤 재판을 한다거나 할 때 노태우나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변을 할 수도 없었지 않았나’고 하여 그 시기는 공소시효에서 빼야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까지를 잃어버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역사는 그 나름대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때는 말하자면 신문이나 언론 또는 매체 등을 통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소문 또는 전언(傳言) 이런 것만이 물밑에서 알려지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행복한 상태라고 그럴까요? 말이 흘러넘치고 지면이 흘러넘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지체로워야 하는 거예요. 예컨대 김지하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김지하한테 지금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지하 어머니는 지금은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상당한 기지를 발휘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빠야 오다보니까 왜놈들이 데모를 한다냐, 엄청나더라. 그 자식들이 미친 놈들이여… 여기도 일어나고 신촌도 일어나고 서울대에서도 일어나고 야단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관이 말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곤 했는데,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뜻있는 기자들이 행간을 통해,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일단 기사로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때 기사는 반드시 큰 게 중요한 기사가 아니고 ‘일단 속에 진실이 있고 일단 속에 엄청 난 것이 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김형욱 사건이라든지, 박동선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또 최종길, 장준하 의문사 사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영원히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고 묻혀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실들이 묻혔던 시절,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의 시대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정치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화운동 시기의 정치권은 오히려 침묵하고 그 대신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이 70년대를 지배하였고, 80년대에는 민중운동세력, 말하자면 엄청난

압제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민중운동들 가령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운동세력이 정치에 실질적인 주역이 되고, 오히려 정치권 야당은 여기에 편승하면서 항상 그렇듯이 결과적으로는 결실은 따 먹었지요.

여기도 썼습니다만 정치권과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이 결합할 때, 정치권이 선명노선을 걸을 때 민주화투쟁은 한껏 고양되고 그것이 민주화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개인성향과 품성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자는 긴급조치9호에 의해 '15년 이하의 처벌에 처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가령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비방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굳이 '유신헌법 반대' 또는 '긴급조치 철폐'라는 말을 선언문에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반면에 윤보선씨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자존심 같은 분이셨는데, 19세기 사람으로 선비기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나는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가 잘못되었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윤보선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과 함께 해야 좀 안전할 거 같으니까 사람들이 윤보선씨 하는 그대로 많이 따라 갔습니다. 반면에 김영삼씨 같은 경우에는 투쟁같은 건 당돌하고 당차게 하는데 항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신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의 촉수가 자신을 압박하면 강하게 튀어나가는, 반박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쪽이 건드리지 않으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니다. 이처럼 정치노선이 많

이 달랐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회창 후보가 진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사가 정(正)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고, 또 정의 방향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방향과 반민주화의 방향 가운데 민주화로의 방향이 정의 방향인데,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서 정의 방향에 섰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통일문제, 민족문제 등에서 정의 방향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말뚱말뚱한 정신으로는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의 정의 방향에 섰던 사람도, 그렇게 서려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을 부르짖고 또는 자기에 대한 탄압에 대한 반발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투철한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는 신념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한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쨌든 투철한 역사의식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와서도 민주화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당당하고 정보부 있던 사람들이 찢찢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처럼 놀아나고, 마치 민주화운동이 잘못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장 청문회 때

국회 분위기를 보면 아직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주의 대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어김없는 역사의 대의였다는 것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어찌면 영원히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기록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던 것이, 흔히 그렇듯이 쿠데타나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방송사 점령이었습니다. 계엄포고령을 발표하는데, 포고령의 1조 내지 2조가 언론검열입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도둑이나 부당한 권력은 어둡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도둑도 밝은 대낮을 싫어해요. 진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론부터 철저히 봉쇄하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이래 모든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아마 트럭으로 하면 몇 트럭이 될 텐데, 그것을 놔둘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다 놔두면 그 집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례를 보면 초창기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어느 교회 기관에 갖다놨는데, 긴급조치가 터지니까 그 기관 사람들이 갖다 다 태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실된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잡히고 기록 보관 사실이 들통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수첩을 안가지고 다녔어요. 가능하면 머리에 외워야 했어요. 가령 이돈명 변호사집이 72국에 6726이었는데, '찌르륵찌르륵'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수 백 개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만약에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다 일이 생기면 그 기록이 공모관계로 몰아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송희 사건’은 수첩에 적힌 사람들을 다 공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기록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일례로 1983년 5월 광주항쟁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단식 투쟁을 했는데 그 양반이 싸움을 할 때는 어처구니 없을만큼 어떨 때는 대단하게 하거든요. 죽겠다는 겁니다.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분과 간접으로 통화를 했는데, ‘간디가 영국을 상대로 단식투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권력이 그래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전두환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이 계획없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당신 목숨을 잃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무모한 싸움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전하니 ‘시끄럽다, 죽겠다. 나는 죽겠다’ 그러고는 23일을 단식을 했어요. 결국 공권력이 와서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당시 야당인 민한당도 들고 일어났지만 신문에는 ‘정치현안’이라는 말로만 표현했습니다. 정치현안이란 ‘정치 쪽에 걸려있는 안건’인데,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김영삼이가 단식을 하는지, 죽어 가는지, 며칠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신문에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기사를 보면 ‘설악산에 반달곰이 죽었다’든지 ‘진천의 황새가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사회면에 톱으로 짝 깔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론보도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척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을 위하여

여러분도 지금 신문기자라고 하는데, 저도 서울문리대 다닐 때 ‘새세대’라는 학보사 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마다 법대 같은 경우에도 학보가 따로 있었고, 서울대학 전체로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도 높았습니다. 그래도 대학언론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시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에 교수들도 행간을 통해서라도 민주화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주화가 되면 제대로 된 신문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언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실을 신지 못하고 단절되고 끊기는 설움을 당한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신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범국민주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한겨레신문입니다. 한 주에 오천 원씩 하는 주식을 ‘나도 몇 주를 갖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손을 통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처럼 한겨레신문의 창간은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고 진실을, 국민을 대변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여러 신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문이 아니라 진짜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자는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만 과연 기대에 얼마만큼 부흥하는지는 더 봐야 알겠죠.

전두환정권 때 언론사 급여를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언론사 기자들의 아들이나 딸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갔을 때 학자금을 주고 월급도 굉장히 높게 해주고 신문사의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자와 언론을 배부른 돼지로 만드는 거죠. 80년대 언론정책은 기자들로 하여금 배부른 돼지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두환정권의 언론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들이 흩어져서 전혀 모아지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홍준 교수가 어디에 쓴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문화계가 오 천년 역사 동안 쌓이고 쌓여서 곳곳이 문화유적지다’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교나 직장들, 거리거리마다가 민주화의 성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대학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언니, 오빠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와 같은 이야기나 실적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커다란 네트워크가 되어서 민주화운동의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다시 확대재생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구 변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습니다. 사랑 이야기도 있어요. 홍성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었는데, 서울대 자연과학대에 다니는 학생과 이화여대 사회과학부에 다니는 학생이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좋아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내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고 서로 마음속으로만 좋아했지요. 그러다가 이화여대 사회과학대에 다니는 학생이 데모하다가 잡혔어요. 어느 날 서울대학 자연과학대 다니는 학생이 홍 변호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누구누구를 변론하시죠?” “그렇다” 그랬더니 “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도 싸우다 들어가겠다고.” 당시 그 여학생의 면회는 가족만이 되니까 그 남학생은 면회는 못하고 여학생한테 책 넣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그

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끊긴 거예요. 실지로 얼마 뒤에 이 남학생이 데모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감옥에 있는 둘을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뒤에 결말은 모르겠어요. 남학생의 이름이 구씨라는 건 아는데, 그 뒤에 둘이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그림 같은 이야기, 아름다운 미담같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삼십 년 역사 속에 간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미담, 비담 같은 것을 소설이나 연극으로 현재화해야 하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약하고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대학교 기자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화운동 하나하나의 역사는 전부다 피로 써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것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당시로서는 워낙 무서워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놈들한테 재판을 받아봐야 뭐하나, 그렇지만 이걸 너무 억울해서 나의 진실만은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당한 게 억울해서 세상에 알려야겠는데 재판은 거부해야겠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모두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김근태라는 사람이 남영동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다가 마침 고문 중에 발뒤꿈치에 외상이 났는데, 그 상처가 감옥에 가니까 딱지가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딱지를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집념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당한 고문을 폭로해야겠는데, 독재정권 하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요식행위일 뿐이니까, 폭로는 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을 길은 없느냐, 법전

을 뒤지고 뒤지다 보니까 모두진술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피고인에게는 재판장에 가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인정신문을 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전에 모두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전을 뒤지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옛날에 서울시장을 했고, 지금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김상철이라는 변호사인데, 아주 똑똑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김상철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법 몇 조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모두진술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시죠?” “그렇다” “모두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김근태 피고가 그 딱지를 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고문의 진상을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박종철을 죽인 그 치안본부에서의 저 무시무시한 고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게 이뤄진 것이지, 어느 날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0년대 감옥 갔을 때만 해도 가다밥이라는 밥을 주격으로 뜯 때 사선으로 뜨면 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요. 이걸 다른 놈한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세끼 밥을 줬는데 배가 고프는 겁니다. 아침 먹고 10시쯤 되면 배가 고프서 ‘쏟린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배가 고프었어요. 정치범들이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가도 절대로 굶주리거나 배고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피로 싸우고, 골방에 들어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변론요지서나, 최후진술이라든지, 무슨 항소이유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기록으로서의 문건도 있고, 문장으로서도 아주 탁월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오늘날

감옥행태라는 것은 일제시대만도 못해요. 일제시대에 이승만은 감옥에 들어가서 『독립정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집필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람시가 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감옥에서 집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은 그게 안돼요.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도 집필허가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감옥에 집필허가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감옥 문학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단히 좋은 문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 하나는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학신문 같은 데서도 하나의 사료로 또는 기록으로 연재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압축적인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뤄내고 또한 마찬가지로 압축적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낸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구에서 300년 동안 이뤄낸 산업화를 30년 안에 해낸 것처럼, 민주화 300년 역사를 30년 안에 이뤄낸 엄청난 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지만요. 이처럼 산업화를 이룬 기적적인 저력과 민주화를 이룬 도덕적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피테 말을 인용해서,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한 번쯤은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조국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한 번쯤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쯤 잘못 되어가는 조국의 현실을 놓고 물어본 사람만이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조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저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일으키고,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형편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화를 거친 이후에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까지는 민주화가 절대 절명의 과제였습니다.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전상태입니다. 사실 박정희정권이나 전두환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 제일 큰 것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인력을 이런 내전상태, 내부 투쟁 속에서 소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낭비와 소모가 있었다는 것이야 말로 독재정권들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굴레와 억압의 질곡이 없어진 만큼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 다시 뿔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 욕심이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 쪽으로 빠져 나가서 국민의 정부도 만들고 참여정부도 만

들고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의 흐름입니다. 이것 또한 상당한 진전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과 싸우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고 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힘으로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앞에 르네상스가, 한민족의 르네상스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야 말로 르네상스에 주역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질곡이 없기 때문에 더 밝게 미래로, 세계로 무한한 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